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이해 “아하! 복식부기 이렇군요!”

정 윤 한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서기관

제1강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방식의 기초적 이해(사례)

1. 복식부기 회계제도 연재를 시작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이 기록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상태와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어 대외적으로 공시하게 된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공무원들도 재정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보다 깊이 고민할 수 있게 되며, 공무원의 경영마인드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이러한 효과를 갖는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도입에는 막연히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계처리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

필자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인 2007년도에 가급적 새로운 회계제도를 직접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해설하고자 한다.

일본의 한 학자는 공공부문에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을 회계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혁명이 성공하여 우리나라의 재정운영시스템이 세계 일류가 되기 위하여는 일선에서 구체적인 업무처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공무원이 혁명전사가 되어야 한다.

혁명전사 여러분의 큰 활약을 기대해 본다.

2. 에피소드

복식부기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윗분들이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나중에 의회에서 결산심의를 하게 되면 의회 의원과 간부공무원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의 내용을 보아가면서 재정운영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져야 할 텐데 지금까지는 이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많다. 정부는 기업과 다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회계처리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자의 경우도 업무 수행상 상급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했을 때 답변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하루는 어떻게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까를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이 하루 동안 발생했던 경제적 거래를 사례로 들어 윗분들에게 설명한 경험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때 사례로 설명했던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로 한다.

3. 일상적 거래와 복식부기 회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하루 동안의 거래를 통해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래¹⁾가 발생할 때마다 회계장부에 기록하는데 단식부기는 거래의 원인에 상관없이 돈이 들어오면 들어온 사유를 밝혀 수입장에, 돈을 쓰게 되면 쓴 용도를 밝히며 지출장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복식부기는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합니다. 이같이 동시에 기록하기 위해서 장부의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으로 나눠 기록하는데 이 과정을 분개²⁾라고 합니다. 분개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산의 증가(또는 부채의 감소)나 비용이 발생(또는 수익의 감소)하면 왼쪽(차변), 자산의 감소(또는 부채의 증가)나 수익이 발생(또는 비용의 감소)하면 오른쪽(대변)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분개를 기록하는 장부를 분개장이라 합니다.

자 그럼 어느날 저에게 발생했던 거래를 들어 회계처리와 결산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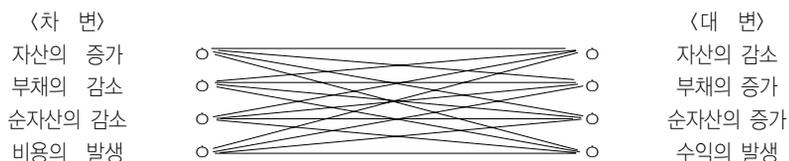
1) 출근길에 와이프가 50,000원을 용돈으로 주었습니다.

- 단식부기에서는 돈이 들어왔으므로 수입장에다 “용돈 50,000원” 이라고 기록하고, 복식부기에서는 거래가 발생했으므로 “현금(자산) 50,000원 / 용돈(수익) 50,000원” 이라고 기록합니다.

분개장에서 용돈, 현금 등과 같이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 항목을 설정해 놓은 것을

- 1) 회계상에서의 거래(accounting transactions)란 수익이나 비용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자산부채·순자산 등에 변화를 초래하는 경제적 사건을 말한다. 이러한 거래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거래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회계원리에 관한 일반적인 교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2) 분개는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의 8요소 결합관계에 의하여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의 8요소의 결합관계>



계정(과목)이라고 합니다.

- 2) 출근할 때 택시를 타고 10,000원을 지불했습니다.
 - 단식부기에서는 택시비 10,000원을 지출장에 기록하고
복식부기에서는 택시비(비용) 10,000원 / 현금(자산) 10,000원으로 기록합니다.

- 3) 점심시간에 직원들에게 점심(김치찌개 20,000원)을 샀습니다.
 - 단식부기에서는 점심값 20,000원을 지출장에 기록하고
복식부기에서는 점심값(비용) 20,000원 / 현금(자산) 20,000원으로 기록합니다.

- 4) 저녁에는 회식을 했는데 청구서가 60,000원이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카드로 결제하려 했는데, 카드기가 고장이라고 해서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서비스 60,000원을 받았습니다.
 - 단식부기에선 현금서비스 받은 60,000원을 현금이 들어왔으므로 수입장에 기록합니다. 단지 이것은 부채라고 비망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에서는 현금(자산) 60,000원 / 현금서비스(부채) 60,000원으로 비망록이 아닌 본 장부인 분개장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 5) 서비스 받은 돈 60,000원을 회식비로 지불했습니다.
 - 단식부기에서는 회식비 60,000원(지출장)
복식부기에서는 회식비(비용) 60,000원 / 현금(자산) 60,000원으로 기록

- 6)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한 아저씨가 아이들 장난감 자동차(3일간만 작동된다고 함)를 팔고 있어서 3,000원 주고 샀습니다.
 - 단식 자동차 3,000원(지출장)
복식 자동차(자산) 3,000원 / 현금 3,000원

- 7) 귀가길에 택시를 타고 10,000원을 지불했습니다.
 - 단식 택시비 10,000원(지출장)

복식 택시비 10,000원(비용) / 현금 10,000원(자산)

8) 기분 좋게도 집 앞에서 5,000원 주웠습니다.

- 단식 주운 돈 5,000원(수입장)

복식 현금(자산) 5,000원 / 주운돈(수익-우발수익) 5,000원으로 기록을 합니다.

4. 결산

하루 동안의 거래를 정리하여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결산입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에서는 그 결산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보여집니다.

1) 단식부기 결산

단식부기에서는 수입지출 출납결산서를 작성합니다. 이같이 결산하는 방식이 바로 가계부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정리해놓는 것이지요.

하루 동안의 거래 결과 총수입은 115,000원입니다.

수입의 내역으로	■ 용돈	50,000원
	■ 현금서비스	60,000원
	■ 주운돈	5,000원

또한 지출한 총금액은 103,000원으로

구체적 내역은	■ 택시비	10,000원
	■ 김치찌개	20,000원
	■ 회식	60,000원
	■ 택시비	10,000원
	■ 장난감 구입	3,000원입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니 수중에 1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단식부기 결산에서는 수중에 남은 12,000원이 마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세계잉여금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럭저럭 잘 지냈다고... 현금서비스 받은 걸 꼭 갚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잠을 잡니다.

2) 복식부기결산

- ◇ 복식부기에서 결산할 때에는 계정과목별로 결산 재무제표에 들어가야 할 위치에 잘 들여보내야 합니다.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각 범주별로 해당 항목을 넣는 것입니다.
- ◇ 자산, 부채는 재정상태(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에 관한 결산항목이고, 수익, 비용은 재정운영(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에 관한 결산 항목입니다.
- ◇ 또한 무조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기록하는 것을 현금주의라고 하는데 발생주의에서는 기간별 손익(수익과 비용)을 계산하기 위하여 거래 내역을 하루 동안 얻은 수익과 발생한 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 대부분의 모든 거래는 현금주의나 발생주의 모두 비슷하게 인식하지만 장난감 구입비에 대한 거래의 인식은 좀 다릅니다.
- ◇ 현금주의에서는 장난감 구입비 3,000원을 지출장에 기록하지만 발생주의에서는 일단 장난감이 3일간 즐거움을 주므로 하루에 다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이 장난감이라는 자산은 3일동안 사용이 가능하므로 하루사용분인 1,000원은 오늘 하루동안만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 장난감으로부터 얻는 편익이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이상이라 일단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 자산이 사용되는 기간만큼 비용을 산정합니다. 이것이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입니다.
- ◇ 장난감 계정인 자산의 비용화가 필요하여 결산시에는 감가상각비 1,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1,000원 이라는 분개를 실시합니다.
- ◇ 이렇게 해서 복식부기 기록과 발생주의에 의한 인식에 따른 결산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손익계산서(재정운영)		대차대조표(재정상태)	
비용	수익	자산	부채
교통비 20,000	용돈 50,000	현금 12,000	현금서비스 60,000
식사비 20,000	주운돈 5,000	자동차 3,000	
술값 60,000		감가누계액 (1,000) 2,000	부채총액 60,000
감가상각비 1,000	수익총액 55,000		
비용총액 101,000	순손실 46,000	자산총액 14,000	순자산 -46,000
적자		자산 < 부채	

- ◇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을 보면 앞의 단식부기 결산과 상당히 다른 거래 결과에 대한 판단이 이뤄집니다. 단식부기에서는 결과로서 12,000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식부기에서는 하루 동안 한 행위의 결과는 적자였으며 부채만 잔뜩 늘어났음을 깨닫고 너무 험프게 지냈다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잠이 잘 오지 않을 것입니다.

5. 맺음말

- ◇ “단식부기나 복식부기나 하는 것은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의 차이이고 발생주의나 현금주의나는 특정 기간동안에 기간손익의 인식을 발생기준으로 하느냐 현금기준으로 하느냐의 거래의 인식방법의 차이다.”
- ◇ 위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현금주의 단식부기는 재정운영에 대한 합리적 회계기록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왜곡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했을 때 재정운영의 결과 어떻게 재정상태가 변동되는지 그 결과는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원을 취득하는데 주로 관심이 많이 있었으나 이제는 취득한 자원의 관리와 자원에서 산출되는 이익(주민의 만족 등)이 발생하는 비용보다 커야 그 자원을 취득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아무썩도 지속적으로 복식부기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